

포천문협회원 3명 중앙문단 등단

이희용 · 김선진 · 정기모씨 제3의 문학 추천완료



이희용 시인(우) 김선진 시인(좌) 정기모 시인(우)

포천문협회원인 이희용(시), 김선진(시), 정기모(시)씨가 한국문단에 데뷔했다.

12월23일 오후3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아리아리에서 제3의 문학 추천완료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천문협 회원 3명이 2006년 겨울호에 정공재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한 것이다.

정공재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이희용, 김선진 시인의 추천작품들은 정통시가 갖는 운율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심금을 울려주는 비감의 페이스도가 역력하리만큼 아리따게 저려 있어 그야말로 서정시가 가진 지평이 가없음을 암시해주는 듯도 하다"며 "이번 문단에 나서는 두분 시인에게 갈채를 퍼준다"고 밝혔다.

정기모 시인의 추천작품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서정미가 덜한 점은 있지만 자연이나 인생을 소재로 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충실하게 시화하려는 애태움이 오히려 소박하게 빛나고 있어 유니크하다 하겠다"며 "리얼리즘의 독특성을 살리는 시업을 계속 빛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의 문학 발행인 안익수 시인은 "문단에 데뷔하는 시인들에게 문인은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과 자연을 어우르며 사회의 바른 가치를 실현해 가야하는 참 신랄적 순례자라 하며 한국 문학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진정한 문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이희용 시인은 "등단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는데 문단에 적을 올리게 되어 습작으로 보면 이십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상쾌하다"며 "최근 10년전부터 광릉 숲과 관련된 식물과 동물을 제목으로 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삼천여 종류의 식물과 광릉물푸레, 광릉 요강 꽃, 광릉골무꽃 등 1천여종의 식물상과 회귀, 멸종위기의 식물, 그리고 크낙새, 장수하늘소와 같은 삼천여종의 동물상에 대하여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열의를 다하여 글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진 시인은 "누구나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키우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회노애락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때론 슬픔의 무게로 자리하기도 할때마다 느끼는 생각들을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글쓰는 작업이 훨씬 보람되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실력은 뜻과일에 지나지 않지만 아름답고 진실된 글로 빛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모 시인은 "군대생활 12년동안 명령서 작성, 교안작성 등 각종 운영하면서 조선일보 원고모집, 뉴스 리포터에 당선되어 이후 조선일보에 뉴스 관련 글을 연재하게 되었으며 문화일보와 각종 뉴스 출판물에 글을 쓰게 된 것이 오늘의 영광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문인이란 청렴결백해야함은 물론이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되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1

늙은 것이 어찌 목숨을 아끼리까?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김치선은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모셨던 내시이다. 그는 벼슬이 정2품에 올랐는데, 늙은 몸으로 연산군의 횡포를 자주 간하였다. 그리하여 연산군은 항상 불만이었으나 여러 임금을 섬긴 그의 공을 인정하여 자신의 불만을 애써 숨겼다.

연산군이 점차 황음무도(荒淫無道)해지자 김치선은 마침내 뜻을 굳히고 가족들에게 하직인사를 하며 말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죽는 날이오."

그런 다음 그는 대궐에 들어가 연산군의 비행을 낱말이 틀려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거리낌없이 아뢰었다.

"늙은 몸이 이미 일곱 임금을 섬겨왔습니다. 이 몸이 대충 사기[史記]를 읽었습니다만, 지금의 임금 같은 군왕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연산군이 화를 못 이겨 활을 쏘아 그의 갈빗대를 맞췄다. 김치선이 갈빗대에 맞춘 화살을 잡고 말하였다.

잘라버리고 다시 배를 갈라 창자를 뺄바다에 흩어버렸다. 그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충언을 그치지 않았다. 연산군은 마침내 그의 시체를 호랑이에게 주고 그의 이름인 처(處)자를 입에 담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치선(金處善) ? ~ 1505년(연산군11).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문종 때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단종 때 풀려났으나, 1455년(단종3) 정변과 관련하여 유배된 후 분향의 관노가 되었다. 세조 때 복직되어 1460년(세조6)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추록되었으나, 다시 세조로부터 미움을 받아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성종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품계가 지한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산군이 즉위하자 직언을 잘하여 미움을 받던 중 1505년에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비행을 간하였다. 연산군에 의해 다리와 허가 잘리고 죽음을 당하였다. 연산군은 그의 양자였던 이공신(李公信)과 7촌까지 처형하고 본관도 없애버렸다.

자유기고

새옹지마(塞翁之馬)

중국 전한(前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저술한 책인 회남자(淮南子)의 인간훈(人間訓)에는 새옹지마라는 기록이 나온다. 내용에는 옛날 중국 북방(北方)의 요새(要塞) 근처(近處)에 점(占)을 잘 치는 한 노옹(老翁)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노옹의 말(馬)이 오랑캐의 땅으로 달아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慰勞)하자, 노옹은 조금도 애석(哀惜)한 기색(氣色)이 태연(泰然)하게 말했다. "누가 아냐? 이 일이 복(福)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를 치하(致賀)하자, 노옹은 조금도 기쁜 기색도 없이 말했다. "누가 아냐? 이 일이 화(禍)가 될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하는 노옹의 아들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이번에도 노옹은 조금도 슬픈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누가 아냐? 이 일이 복(福)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大擧) 침입(侵入)해오자 마을 장정(壯丁)들은 징집되어 활을 들고 오랑캐를 맞아 싸우다가 모두 전사(戰死)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옹의 아들만은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 무사(無事)히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세상만

사(世上萬事)는 변전무상(變轉無常)하므로 인생(人生)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예측(豫測)할 수 없다.'는 뜻의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있다.

우리는 흔히들 이 고사에 빗대어 인생살이가 새옹지마라고 한다. 새옹지마란 지금의 위치가 성공이나 실패나 하는 것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일로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삶의 교훈을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에 대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삶에서 실패는 언제라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실패를 알아야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러기에 실패라는 그 자체는 당연히 겪어야할 과정이고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실패를 경험했다면 단지 왜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결코 동일한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다. 실패한 자만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옹지마라는 고사를 마음속에 새겨 그동안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교만

했다면 겸손으로 돌리고 반대로 실패에 대하여 절망했다면 마음을 바로잡아 더욱 노력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늘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새옹지마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은 우리를 땀땀 그 속에서 허겁지겁 일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다. 그러나 지금 처한 입장이 어려운 처지라고 비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원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대처할 상황에 대한 준비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극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반대의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깨달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명년에는 세월이 흘러가자 말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밝은 해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의 기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희용 포천문협지회장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 포천문화원 2006 문화인의 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은 12월 20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박은국 포천시장 및 이강림 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온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회,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만규 문화원장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좋은 책 읽기운동 독후감 입상자, 문화유적답사 소감문 작성부품 입상자, 문화학교 2006년도 수료생 504명에 대한 수료증과 18개 과정 분사상 시상식을 했으며,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와 협천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화행사는 축시낭송을 비롯 지난 1년간 포천문화학교에서 배운 기타공연, 우리 춤 체조, 대금, 성악교실총창,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가짐으로써 지역



문화 청담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문화학교에서 연마한 꽃꽂이, 사군자, 한국화, 전통 및 현대서각, 고색한지공예, 규방공예, 전각 등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 자랑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5)

효자 류홍서(柳弘緒) 류찬서(柳贊緒)

「혹부후복(或負或覆) : 업기도 하고 덮치기도 하고 / 감치홍도(甘齒紅刀) : 기꺼이 홍적의 칼날을 맞으니 / 모수불행(毋雖不幸) : 어머니에게는 불행하다 할지라도 유효이운(有孝義運) : 효자 빛나는 두 아들 두시었네」

이 시는 영조조 양관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한 명재상 이의현(李宜顯)선생의 찬시(讚詩)이다. 류「홍서」「찬서」는 내 고향 포천 자작리에 있는 효우정려비(孝友旌闡碑)의 주인공인 류인선, 류은선, 류예선, 류지선, 류정선 오형제 중 넷째 류지선님의 손자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난을 피

하고자 형 홍서는 어머니 윤부인을 업고 아우찬서는 곁에서 부축하며 왜놈들의 적진을 몰래 지나가다가 그만 왜적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잔인무도한 왜적들은 홍서 등에 업힌 윤부인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곁에 있던 찬서가 어머니 윤부인에게 향한 칼을 가로막으니 홍적 왜놈의 칼은 찬서를 내려 쳐서 모자가 동시에 살해되고 형 홍서는 두 시신의 아래에 깔려 있어 죽음을 면했으나 심한 상처로 중상을 입고 평생 고생 끝에 일생을 마쳤다.

조정에서는 이 처절한 효의(孝烈之孝義)를 널리 표창하여 효자정문(孝子旌門)을 세웠다. 조부

의 효행을 본받은 바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류씨 가문의 대를 이은 광영(光榮)뒤에는 이렇듯 가슴 저미는 일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효사상(孝悌思想)을 유교사상에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흐르는 도도한 조상숭배(祖上崇拜)사상에서 비롯된 전통사상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삼국유사 속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충효(忠孝)중 충(忠)을 앞 세우 말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전통 사상은 효(孝)가 충(忠)보다 앞선다는 사실도 명심(銘心)할 필요가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敬老侍宴感(경로시연감)



柳鳳鉉 한시협회 포천지부장

侍宴儒林意甚眞(시연유림의심진)

원로 유림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뜻이 참되니
奉邀耆老盡官民(봉요기로진관민)
노인을 위한 결로잔치 관민이 힘을 모았네.
閭閻未聞新儀好(여염미문신의호)
여염(시골마을)에서도 생소하지만 새로운 의례가 좋으며
會館初知古俗淳(회관초지고속순)
회관에서 시연하는 순박한 옛 풍속을 일깨웠다.

飲酒咸稱招講義(음주함칭초청의)
한대를 받으면서 초대받은 일을 감사하고
投壺共謝遇情仁(투호공사우정인)
투호놀이 하면서 사귀는 정이 깊어 졌네.
來臨此席共遐邇(래림차석공하이)
오늘 이 자리는 원근 원로들이 함께한 자리인데
事後褒揚教化彬(사후포양교화빈)
이런행사가 널리 홍보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